

월요광장



심옥숙
인문지행 대표

개인의 일상이든 공적 사회 속이든 어디서나 우리 곁에는 누군가 다른 사람이 있다. 이 누군가가 바로 타인이다. 타인의 의미는 '나'를 중심으로 보는 표현이고, 의미의 이해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단어다. 타인은 '나'가 아닌 모든 다른 사람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언제나 타인에 둘러싸여서 타인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사람에게 타인 없는 삶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타인의 의미는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되어서 우리는 언제나 다른 사람들의 '타인'이다. 즉, 우리는 자기 자신이자 동시에 누군가의 타인이다. 그래서 결코 아무도 다른 누군가와 하나로서 합일과 일체가 될 수 없지만 그럼에도 함께 살 수밖에 없도록 조건 지어졌다.

사실 타인과의 문제는 타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타인의 시선에 있다. 우리가 누군가를 불편하게 여기거나 또는 서로 잘 통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타인의 시선 때문이다. 시선이란 세상을 보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자 태도이다. 그래서 우리 자신 각자가 곧 하나의 시선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우리 자신

타인의 시선, 나와 나의 필연적 매개자

의 시선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판단하며 의미를 찾는 것처럼 누구나 그렇다. 이는 우리가 타인의 시선에 의해서 보여지고 관찰되며 평가받는 존재라는 뜻이다. 그래서 타인의 시선을 통해서 보여주는 '나의 모습'은 더 이상 주체적이고 자유로운 '나'가 아니다. 타인의 시선은 우리를 객체로 만들며 규정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타인의 시선에 노출되면 사람은 자신의 모습을 연기하고 마음에 들만한 행동을 하는데 이를 사르트르는 '유명한 개'라고 말한다.

시선 투쟁에서 타인과 나는 대립 형태를 취한다. 타인과 '시선'을 주고 받는 것을 통해서 시선 투쟁을 하고 서로 주체가 되려고 하기 때문이다. 결국 어느 한쪽은 '시선'의 대상으로 객체화되며 사물처럼 취급된다. 다른 시선을 가진 두 존재가 대등하게 자유롭게 주체적으로 공존할 수는 없다. 그러나 타인의 시선이 오로지 '지옥'만은 아니다. 이 의미만으로는 타인의 시선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객체화된다는 것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고 인식되는가를 보여준다. 타인의 시선을 통해서 나의 자유로움과 정체성에 미치는 타인의 영향을 알고, 문제에 대한 대처를 고민하고 극복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타인의 시선을 통해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거나 나를 주체로만 보는 것을 극복하는 계기와 힘이 된다. 타인의 시선을 통해서 스스로 자신을 객체로서도 보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이 누구이며,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아 가는 자아 인식 과정에서

타인과 그 시선은 절대조건이다. 이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동시에 주체이자 객체로 인식하는 기회를 얻는다. 타인은 나 자신은 아니지만 나에게서 떨어져서 무관한 상황에 놓여있는 것도 아니다. 우리에게 타인은 나처럼 자유로운 주체이며 자신의 '시선'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타인의 시선을 통해서 자신의 저속한 욕망과 부족함과 염치없음을 아는 것이 곧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깨닫는 길이다. 이런 의미에서 타인은 나와 나 자신을 연결하는 불변하나 필연적인 매개자다. '나'를 나의 밖에서 볼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의미다. 자신의 시선 독점을 위해서 타인의 시선을 무조건 외면하거나 매도하는 것은 힘만 믿는 무지이며 파괴적이며 희망 없는 '유아론'이다.

또 다른 문제는 흔히 자발적 복종을 자유를 선택하는 것으로 왜곡하는 것이다. 다양한 권력에 의한 '시선의 독점'에 질문을 던지지 않는 태도다. 이로써 시선의 독점을 위해서 타인의 시선을 무조건 외면하거나 매도하는 것은 힘만 믿는 무지이며 파괴적이며 희망 없는 '유아론'이다.

또 다른 문제는 흔히 자발적 복종을 자유를 선택하는 것으로 왜곡하는 것이다. 다양한 권력에 의한 '시선의 독점'에 질문을 던지지 않는 태도다. 이로써 시선의 독점을 위해서 타인의 시선을 무조건 외면하거나 매도하는 것은 힘만 믿는 무지이며 파괴적이며 희망 없는 '유아론'이다.

수필의 향기



박용수
수필가·동신여고 교사

와글와글 꼭 개구리 우는 소리 같다. 시장 골목은 입구에서부터 요란하다. 꼭 속에서 솟아나는 물처럼 그곳에서 말들이 끊임없이 솟아 나온다. 한시도 간혀 살 수 없다는 듯 내면에 갇혀있던 언어들이 홍수처럼 골목을 따라 흘러내린다. 그 많은 욕망을 저 작은 몸이 어찌 가두고 삼았을까. 듣는 이는 없고, 운통 말하는 사람만 있는 것 같은, 마구 흩어져 범벅인 자음과 모음에서 용케도 자신들의 언어를 찾아 듣는 이들도 신기하다. 마치 시끄럽게 울어대는 개구리 소리를 듣는 것 같다.

모내기를 할 무렵 무논은 개구리 천지였다. 씨를 뿌릴 하시던 아버지 뒤를 따라 갈망태를 던지고 누가 많이 잡는가? 개구리잡기 시합하고는 했다. 우린 그 개구리들을 잡아 때뚜기를 꿰듯 꿰미에 가득 꿰어 집으로 왔다.

도시에서 듣는 개구리 소리는 낯설다. 아파트 인공 호수에서 우는 개구리 소리는 우중충한 날빛 탓인지 귀가 멍멍할 정도로 그악스럽다. 그렇게 외쳐대는 우렁한 소리가 작은 발소리에도 일시에 푹 멈추는 것을 보면 도시 사람을 닮아 여간 영악하게 여겨지기도 한다.

개구리 소리 들으며

개구리 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 때가 많았다. 꼭 친구들 떠드는 소리 같기도 하고, 어머니가 들려주는 자장가 같기도 해서 곤란 잠이 들었다. 간혹 그 속에 맹꽁이 소리라도 들리면, 벌치를 다듬다가 푼뚜기 새끼를 만난 것처럼 반가웠다.

비 오는 날 개구리 소리는 유별나게 청송맞게 들린다. "엄마, 엄마! 나 죽거든 ♪ 뒷산에다 묻어 주 ♪, 눈이 오면 쓸어주고 ♪ 비가 오면 덮어 주?"

유년의 동요와 더불어 어머니의 말이면 거꾸로 실천했던 청개구리. 냇가에 묻어달라는 어미의 유언을 처음으로 실천해서 무덤까지 잃고 마는 청개구리 동화가 꼭 남 이야기 같지 않아서 더욱 슬프다.

개굴개굴 개구리 소리를 들으면 곧잘 시골 어머니가 떠오른다. 번덕스러운 자식을 죽을 때까지 헤아리는 부모와 달리, 끝까지 깨닫지 못하는 자식의 어리석음을 받아들여 포용한 우와. 그 청개구리가 바로 나 아니냐고 개굴개굴, 내게 묻는 것 같다.

소나기처럼 개구리 소리가 시원하게 적셔주는 여름 밤이다. 개구리 없는 눈은 눈이 아니고, 개구리울음 없이는 여름밤 역시 여름밤이 아니다. 가을에 구성지게 우는 매미 소리처럼 여름철 무논에서 우는 개구리의 합창은 아무리 들어도 싫증이 나지 않는다.

이숙한 밤에만 산기슭을 내려오는 뱀장신 발소리 같기도 하고, 야심한 밤까지 일하고 돌아온 어머니 한숨 소리 같기도 한, 한동네 처녀와 총각이 몰래 만나 속닥속닥 속삭이는 소리 같기도 한 소리. 밤 달라고 울고, 사랑 달라고 울고, 평화롭게 살자고 우는지도 모른다.

야생 동물들에게 소리는 자신의 위치를 노출하는 위험천만한 일인데도 짹짹 철이 되면 더욱 요란한 것 보면 죽음보다 더 강렬한 것이 사랑의 힘이 아닐까. 짹 짹 애태게 부르는 사랑의 소아곡이었음을 지금에야 알고 하니, 지난날 개구리를 마구 잡았던 일이 무척 무안해진다.

살다 보니 우리 삶도 꼭 개구리들 같다. 아니 개구리보다 못하다. 개구리는 사랑을 노래하는데도 우린 모이기만 하면 싸움질이다. 물러나라. 왜 물러나니 밀고 당기고. 인상하라, 낮춰달라 고함친다. 증원하라, 원점으로 돌려나라. 밝혀라, 못 밝혀겠다. 쫓도 보기 싫다, 제발 눈에 보이지 마라. 누가 언어적 동물 아니랄까 봐 야구장인지 국회인지 공사판인지 성당인지 아담이고 또 법석이다.

개구리 등장하는 한자 성어, 정중지와(井中之蛙), 반와(井蛙), 외음지성(蛙釜之聲), 춘와추선(春蛙秋蟬)을 보면 모두 개구리를 식견이 좁거나 요란하게 떠드는 실속 없는 존재로 낮잡아 부른다. 선조(蟬噪)와 명(蛙鳴)이든 외명 선조든지 지금도 여전히 시끄럽다고 애먼 개구리 탓만 하고 있다. 개구리와 매미가 문제인가. 진짜 돌아봐야 할 것은 조용할 날이 한시도 없는 지금의 우리 모습은 아닐까.

스님들 수행 중 하나가 묵언수행이다. 눈감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고통을 이해야 할 것 같다. 말이 많을수록 쓸모 있는 말 또한 없다.

내가 지금껏 하고 있는 말들도 저 눈에 울어대는 개구리 소리보다 더 낫다는 말을 차마 못하겠다.

기고



김용덕
빛고을노인건강타운 본부장

빛고을노인건강타운 15년의 역사는 어르신들의 삶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노대동에 건강타운이 들어서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광주의 특별한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2009년 출범한 빛고을건강타운은 광주 어르신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타운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은 '대한민국 노인복지 1번지, 노인 천국, 노인복지의 메카, 내게 살아가는 힘을 주는 곳' 등의 멋진 말로 빛고을타운을 자랑한다.

이런 말들은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닐 것이다. 대추 한 알이 붉게 익는 데도 태풍과 천둥, 벼락과 번개 몇 개가 들어가야 하듯 그동안 어르신과 지역사회, 직원들의 땀방울과 고뇌, 열정과 열망, 뛰는 가슴이 있었기에 가능했는 것이다.

98세의 한 어르신은 요즘도 매일 타운에서 산책을 하고 점심을 드신다. 프로그램을 수강하지는 않지만 이곳 저곳을 다니면서 친구를 만난다. 직장을 갖 퇴직하신 한 회원은 일주일에 두 번 나온다. 평소 배우고 싶

신노년 문화를 선도하는 '모두의 공간'

었던 서예와 악기를 즐겁게 익히고 있다. 아침에 일어나 제 시간에 나올 장소가 있는 것으로 행복하고 든든하다고 하신다. 또 다른 어르신은 회원이자 강사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나누고 싶은 마음에 인생의 마지막을 타운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한다.

빛고을건강타운의 미션은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을 증진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광주의 자장으로 대한민국 노인복지 1번지가 되고, 보람된 여가와 사회공헌의 가치를 실현하며, 모범이 되는 어른인 선배시민으로 신노년문화를 선도하는 것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빛고을건강타운이 추구하는 3대 가치인 개방성, 공공성, 탁월성은 이미 복지의 기준이 되었다. 노인을 비롯해 광주시민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개방성을 통해 공공성을 담보함으로써 대한민국 노인복지 1번지 광주의 자장으로 탁월함을 과시하고 있다.

공공정책개발 1000인 빛타운 정책참여단, 복지여행 플랫폼 노대마실 운영, 은빛도슨트 양성을 통해 노인복지 모델 구현과 집집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어르신들의 선배시민 문화를 만들기 위해 광주선배시민네트워크 구축, 사회공헌 활동, 선배시민 봉사단, 다양한 노인일자리 사업을 실천하고 있다.

81중 151개 반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노년의 재사회화를 통한 신노년문화 형성과 또다른 삶의 기술을 익히는 사업들이다. 취미, 여가, 운동, 정보화를 통한 삶의 근육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물론 1.3세대 통합을 위한 배움을 멈추지 않는 타운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초록의 잔디광장에 알록달록 파라솔이 그늘을 만들어 어르신과 지역주민의 쉼터가 되었다. 평화를 상징하는 바람개비는 바람을 보여주고, 야외 흔들 그네의 자는 이용객들에게 편안함을 선사해 주었다. 타운 어르신들과의 백년동행 캐릭터인 빛개미와 별비가 탄생하였고 타운 곳곳의 포토존을 지키는 수호자가 되었다. 매주 목요일에는 로컬푸드 장터가 열리고 매달 셋째주 화요일에는 신규 회원들과 본부장이 만나 이야기를 하는 타운을 미팅이 진행됐다.

타운은 광주의 모범적인 어른의 모습을 선배시민으로 명명하고, 광주선배시민네트워크를 준비하고 있다. 선배시민의 삶을 후배세대에 전하는 신규 공무원 및 교사연수 프로그램을 구성중이다. 노인복지와 여행을 융합한 견학 프로그램 노대마실의 확장판이다.

본부장으로 빛고을노인건강타운에서 보낸 1년은 색다른 변화의 연속이었다. 손가락 하나를 잃었을 뿐인데 함께 하고자 하는 손가락들이 모여 타운의 공간과 내용, 사람들의 태도와 마음이 놀라운 변화를 하고 있다.

동료 직원들과 어르신, 선배시민들의 활동과 응원, 신뢰와 도전이 함께 어우러진 결과다. 1500여명의 어르신들이 매일 맛있는 점심을 드시고 하루 3000여명의 회원들이 타운 곳곳을 이용하며 삶의 활력을 되찾는 곳이 됐다.

이제 어르신 개인들의 생각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의제가 되고, 공공정책으로까지 발전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빛고을타운에서의 또 다른 1년이 기대되는 이이다.

社說

AI중심도시 표방 광주시, 전문성 확보부터

인공지능(AI) 중심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광주시가 AI 중심도시 2단계 사업을 앞두고 오락가락 행정을 보이고 있다.

AI 중심도시 사업은 광주시가 민선 7기부터 광주의 산업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바꿀 미래 성장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AI 실증밸리 확산사업'이란 이름으로 2020년부터 올해까지 1단계로 인공지능 집적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해 왔다. 문제는 내년부터 2029년까지 국비 등 6000억 원을 투입해 추진하는 2단계 사업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2단계 사업 준비기간이 5년이나 있었는데도 사업 성격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관련 용역만 수차례 진행하는 등 갈팡질팡 하고 있기 때문이다. 4000억 원에 육박하는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놓고도 '신장'과 '면제' 사이에서 오락가락 했다. 당초에는 예타를 신청하려다 1·2단계 사업은 연속사업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예타 면제로 전략을 수정

했는데 기획재정부를 설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한 달도 지나지 않아 결국 신청으로 급선회 했다.

예타 조사는 선정 자체도 쉽지 않은데다 선정된다 하더라도 최소 6-8개월의 조사 기간이 필요해 2단계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지 알 수 없다. 광주시는 윤석열 대통령인 민생토론회가 광주에서 열린다면 예타 면제를 다시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데 얼마나 안이한 대처인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2단계는 AI 인프라 및 지원체계 구축과 실증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집적단지를 조성하는 1단계 사업보다 훨씬 정밀하게 추진해야 한다. 2단계 사업이 시작부터 차질을 빚게 된 것은 공무원들의 전문성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것이다. 변화의 속도가 빠른 AI산업 생태계를 감안하면 광주시청 공무원들에게만 맡겨 둘 것이 아니라 민간 전문가를 아웃소싱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국선변호사 보수 연체 법률서비스 하락 우려

서민과 취약계층을 변호하는 국선변호사들이 보수를 제때 받지 못하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고 한다. 국선변호사들의 보수 연체가 처음은 아니지만 올해는 연초부터 장기 연체가 발생해 변호사들의 사기 저하는 물론 법률서비스 질 하락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선변호사는 개별 변호사가 맡는 일반 국선변호사와 국선변호사 사건만 수행하는 국선전담변호사로 나뉜다. 광주법원에 따르면 광주법원 관할에는 159명의 일반 국선변호사와 7명의 국선전담변호사가 활동중이다. 일반 국선변호사나 국선전담변호사 모두 법원에서 보수를 받는 것은 같지만 국선전담변호사가 고정 급여를 받는데 반해 일반 국선변호사는 1건당 55만 원의 보수를 받는 점 다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일반 국선변호사로 올해는 연초부터 보수가 제때 지급되지 않다가 최근 6월분 일부만 지급됐다.

보수가 장기간 연체되면서 초임 변호사

들이 사기 저하와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 사건 최소 수입비가 330만 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이미 자리를 잡은 변호사에게 국선사건은 봉사 개념이지만 한 달에 3-4건의 국선사건을 수임해 사무실을 운영하는 초임 변호사에게겐 생계에 타격을 줄 정도다.

더 큰 문제는 경제적 이유로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서민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이다. 형사공판사건(치료감호 사건 포함) 피고인의 40% 가량이 국선변호사의 조력으로 재판을 받는 현실로 볼 때 국선변호사 보수 연체가 법률서비스 하락으로 이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국선변호사 제도의 도입 취지는 돈이 없어 변호사를 살 수 없는 취약계층에게도 최소한의 자기 방어권을 제공하는데 있다. 아무리 세수가 부족하지만 얼마 되지 않은 예산 때문에 억울하게 재판을 받는 약자가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無等鼓

'한류'는 한국 대중문화가 해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현상을 말한다. K팝, K드라마, K영화, K문학 등 우리의 대중문화는 세계적인 문화 트렌드로 부상했다. 지난해 기준 우즈베키스탄은 16개 대학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베트남은 한국어 강좌 개설 대학만 60곳에 이를 만큼 한류 열풍이 거세다.

그러나 불과 30, 40년 전만 해도 우리의 대중문화는 상당부분 미국에서 수입된 것이 대부분이었다. 미국 팝음악은 가계 나 거리에서 지금의 K팝 만큼 흔하게 들을 수 있었다. 음악감상실은 팝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창구였으며 할리우드 영화인 '로마의 휴일', '벤허' 같은 작품은 최고 인기를 구가했다.

광주역사민속박물관에서 8월 18일까지 진행되는 '한류와 예향' 전시실에는 동아시아 대중문화와 관련된 자료들, 이틀테면 흥콩 영화 비디오테이프부터 '영웅본색' 포스터 등 이색적인 자료가 비치돼 있다.

예향 광주의 대중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리도 있다. 일제강점기 광주에서 번성했던 전국 유일의 단관극장 광주극장은 물론 제1회 전일방송 대학가요제 대상곡 '모모는 철부지'라는 가사로 친숙한 김만준의 '모모' 등도 볼 수 있다. 특히 요절한 가수 김정호의 '하얀나비'를 비롯해 세계적인 그룹 BTS 멤버 제이홉과 관련한 자료는 자부심을 갖게 한다.

전시를 보다 보면 김구 선생이 '백범일지'에 남긴 어록이 자연스레 상기된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지금 인류에게 부족한 것은 무력도 아니요, 경제력도 아니다. 인류의 이 정신을 배양하는 것은 오직 문화다."

세계를 매료시킨 한류의 저력은 다양한 요인이 있겠지만, 예향으로 대변되는 광주 문화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다. 곧 있으면 초·중·고교 여름방학이 시작된다. 학생들과 함께 '한류'전을 관람하는 것도 무더위를 피하는 방법일 듯 하다.

/ 박성천 문화부장 skypark@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편집인 崔宰豪		논설실장 蔡熙鍾 편집국장 崔權一 제작국장 柳洵堯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지국) (구독 신청·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 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5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체육부 220-0697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80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